

中 바이두, AI 모델 2종 공개… “답시크 수준 성능에 절반값”

‘어니 4.5’ ‘어니 X1’ 출시
텍스트·이미지·오디오·비디오
콘텐츠 통합·이해 능력 뛰어나
바이두 플랫폼 ‘첸판’에서 접근

압도적인 가성비 자랑하는 인공지능(AI) 모델을 선보인 중국 답시크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다른 중국 빅테크 기업인 바이두가 답시크의 절반 비용에 유사한 성능을 제공하는 AI 모델을 공개해 다시 한번 전세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중국의 빅테크 기업 바이두는 지난 16일 최신 인공지능(AI) 모델인 ‘어니(ERNIE) 4.5’와 ‘어니 X1’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바이두는 이번에 새롭게 선보인 인공지능 모델들은 답시크의 ‘답시크 R1’, 오픈AI의 ‘GPT-4.5’와 성

능이 유사하거나 뛰어나며, 가격은 훨씬 저렴하다고 주장했다.

바이두에 따르면 어니 4.5는 자체 개발한 멀티모달 기반 AI 모델로, 텍스트·이미지·오디오·비디오 콘텐츠를 통합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멀티모달 AI는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등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하고 이해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의미한다.

바이두는 “어니 4.5는 이해·생성·추론·기억 능력이 향상됐고 환각 현상이 감소했으며, 논리적 추론 및 코딩 기능이 개선됐다”며 “높은 지능과 상황 인식 능력을 갖춰 인터넷 밈(온라인상 유행하는 콘텐츠)과 풍자만화를 쉽게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바이두는 어니 4.5가 DROP(독해 및 추론), CLUEWSC(중국어 자연어 이해

평가) 등의 벤치마크에서 GPT-4.5를 능가하는 성능을 보였으며, 가격은 GPT-4.5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어니 X1은 바이두 최초의 멀티모달 심층 사고 추론 모델이다. 바이두는 “어니 X1은 답시크 R1과 동등한 성능을 반값에 제공한다”면서 “특히 중국어 지식 질의응답, 문학 창작, 원고 작성, 논리적 추론, 복잡한 계산에 탁월하다”고 덧붙였다. 어니 X1은 ▲고급 검색 ▲주어진 문서에 대한 질문과 답변 ▲이미지 이해 ▲AI 이미지 생성 ▲코드 해석 등 다양한 도구를 지원한다.

기업 사용자와 개발자는 바이두의 AI 클라우드 플랫폼인 ‘첸판(Qianfan)’을 통해 어니 4.5의 응용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에 직접 접근할 수 있으며, 입력 가격은 100만토큰당 최저 4위안(약 800원), 출력 가격은 16위안

(약 3200원)이다. 어니 X1 서비스도 곧 첸판 플랫폼에서 제공될 예정이다. 입력 및 출력 가격은 각각 100만토큰당 2위안, 8위안으로 책정됐다.

바이두는 “어니 4.5와 어니 X1의 출시와 함께 바이두는 AI,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지속해 AI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며 “더 스마트하고 강력한 차세대 모델을 개발하겠다”고 전했다.

로이터는 “바이두는 중국 빅테크 기업 중 가장 먼저 챗GPT 스타일의 챗봇을 출시했음에도, 어니 대형 언어 모델(LLM)의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AI 시장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위해 답시크 모델에 필적하는 새 인공지능 모델을 내놓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권태혁 HS오퍼레이션 대표(왼쪽)와 박재강 LG유플러스 기업파트너담당장이 실내 배송로봇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LG유플러스

LG유플러스-HS오퍼레이션 실내 배송로봇 공급

LG유플러스가 숙박시설 위탁운영 기업 HS오퍼레이션과 손잡고 아늑호텔에 실내 배송로봇을 공급한다고 17일 밝혔다.

HS오퍼레이션은 전국 120여 호텔을 운영하는 숙박 운영 전문 기업이다. LG유플러스는 이번 협력으로 인천 구월점 아늑호텔을 시작으로 연내 전 지점에 실내 배송로봇을 확대 도입할 계획이다.

실내 배송로봇은 이동통신으로 연결돼 호텔 내 엘리베이터와 연동해 움직이며, 객실 내 에메니티와 룸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한다. 고객은 비대면 서비스로 더 편리하고 안전한 투숙 경험을 할 수 있으며, 호텔은 인력 운영을 효율화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김서현 기자

AI개발에 필수 ‘학습 데이터세트’ 인프라 구축 나서

KTL, AI 데이터 품질 국제표준 개발
지난달 국제표준화기구 공식 출판

정부가 인공지능(AI)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데이터 기초 체력 다지기’에 힘을 쏟고 있다. AI 개발에 필수적인 학습 데이터세트 구축을 위한 품질인증 제도를 출판하고 기존 ‘AI 허브’를 통해 제공되던 데이터의 유통과 활용까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17일 IT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학습 데이터세트와 관련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품질인증과 연구 지원부터 제공 체계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이날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은 김경민 이화여자대학교 교수와 공동으로 AI 데이터 품질 국제표준을 개발해 지난 2월 국제표준화기구(ISO)에 공식 출판했다고 발표했다. 출판된 국제표준은 AI와 데이터 분석에 활용되는 데이터의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국제 지침인 ‘ISO/IEC 5259-5:2025’



Chat GPT가 생성한 학습 데이터 관련 이미지.

다. 이번 국제표준 개발은 AI 및 데이터 분석에서 신뢰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름에 따라, 체계적인 품질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해당 표준은 AI 및 데이터 분석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기준이다. 데이터 수집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적용 가능한 품질을 유지하고 적절한 통제 및 운영 원칙을 제공한다.

송태승 KTL 디지털산업본부장은 “이번 ‘ISO/IEC 5259-5’ 표준 출판은 데이터 기반 산업 환경에서 신뢰성 있

는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꼭 필요한 값진 성과”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데이터 품질 표준과 별도로, 학습용 데이터의 체계적인 제공을 위한 통합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생성형 AI 개발에서 고품질 데이터의 확보 및 제공 방식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면서, 정부는 2017년부터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을 추진해 왔다. 현재까지 833종의 AI 학습용 데이터를 AI 허브에서 개방했으며, 올해는 70종의 신규 데이터를 추가한다.

/김서현 기자 seoh@

3GPP 기술총회서 韓 의장 첫 당선 성과

RAN 총회 의장에 삼성 김윤선
SA 총회 부의장에 LG 김래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 표준을 개발하는 국제단체인 3GPP가 10일부터 14일까지 인천에서 개최한 ‘6G 워크숍’과 ‘기술총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고 17일 밝혔다.

3GPP는 TTA 등 전세계 7개 표준화 단체가 공동으로 설립한 이동통신 표준개발기구로 WCDMA, LTE, 5G에 이어 2030년경 상용화 예정인 6G 기술 표준도 개발하고 있다.

이번 3GPP 기술총회에서는 삼성전자 김윤선 마스터가 ‘무선접속망(RAN)’ 총회 의장에, LG전자 김래영 책임연구원이 ‘서비스 및 시스템(SA)’ 총회

부의장에 선출됐다. 총회별 의장은 1명, 부의장은 3명이며 임기는 2+2년으로 통상 4년을 수행한다. 우리나라가 3GPP 기술총회 의장에 당선된 것은 최초다.

6G 표준화 작업을 위한 본격적인 첫 발이었던 3GPP 6G 워크숍도 의미 있는 성과가 도출되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6G 기술 관련해 ▲인공지능·클라우드 내재화 ▲소프트웨어 기반 네트워크 등이 제시되었다.

국내 이동통신 3사와 삼성전자, LG전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 국내 산업계가 한목소리로 강조한 ▲AI와 6G의 결합 ▲에너지 절감 기술 등이 6G의 핵심 연구항목에 포함되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김서현 기자

네이버 커넥트재단, AI·SW교육 역량 강화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협력

네이버 커넥트재단이 초·중·고학생들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미래 AI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협력한다.

네이버 커넥트재단은 지난 14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지역 AI·SW 교육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커넥트재단은 전국 초·중·고학생 3만 명 대상으로 ‘소프트웨어야 놀자’ 프로그램을 운영할 강사 800명을 대상으로 AI 역량 강화 연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네이버 커넥트재단은 이번 연수에



네이버 커넥트재단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14일 AI·SW 교육 확산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수진 본부장(왼쪽), 네이버 커넥트재단 조규찬 이사장. /네이버

지원한 강사들이 소프트웨어야 놀자 커리큘럼을 이해하고 원활하게 수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2주간 온·오프라인 교육과 전문가 멘토링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서현 기자

KT알파 쇼핑 2주간 ‘패션위크’

KT알파 쇼핑이 17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2025 S/S 시즌 패션위크를 연다.

쇼호스트 이수정의 ‘수정샵’, 최현우의 ‘초이스’ 등 패션 특화 프로그램을 통해 신상품을 론칭하고, 봄·여름 시즌에 활용하기 좋은 패션 아이템을 특집 편성한다.

패션위크 기간 내 구매고객 대상 매일 추첨을 통해 ‘골드바 1돈(14명)’을 증정한다. 패션위크 오프닝과 피날레 방송에서는 추첨을 통해 ‘신세계 상품권 5만 원권(6명)’을 증정하고, 일부 상품에 대해서는 모바일 구매 시 10% 적립과 최대 7% 카드 청구할인을 제공한다.

KT알파 쇼핑은 패션위크 기간 패션에 특화된 기획 프로그램을 정규 방송 외 추가 집중 편성하며 2배 가까이 방송을 확대한다. /김서현 기자